

3.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

1970년대 후반에 KDI가 연구한 과제 중 비중이 큰 프로젝트는 75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와 76년부터 77년 말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 낸 ‘장기 경제 · 사회발전(1977~91년) 연구’였다.

전자는 1945년 해방 후부터 1975년까지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 사회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었고, 후자는 77년부터 91년까지 앞으로 다가올 15년간의 우리 경제 · 사회의 발전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이 두 프로젝트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작업이었다.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는 KDI가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예산 중 외화부분은 USAID에 교섭하여 46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국내 비용은 KDI가 부담하였다.

46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한 USAID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주요 이슈로 해줄 것을 KDI에 요구했다. 그러나 김만재 원장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

으나, 그보다 많은 다른 요인들을 연구해야 올바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KDI가 독자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의를 이끌어 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김만제 원장은 앞으로 계속될 경제개발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근대화과정 연구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국내외의 많은 학자와 우리처럼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나라의 실무자와 국제 원조기관 등에 성공적인 경제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해 주고 연구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사업에서는 한국 경제의 획기적 성장과 이에 따른 과실의 분배 및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내재된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외국의 원조, 특히 미국 원조의 역할을 평가한다는 방법론이 채택되었다.

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파트너로서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하버드 측 책임 멤버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데이빗 콜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다.

“당시 이 공동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단계에 이르자 하버드와 프린스턴, 스탠퍼드대학교와 브루킹스연구소,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는 하버드와 프린스턴대학교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이 공동 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 제안서를 내야 하는 단계에서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1975년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

차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지식인 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 끝에 연구 제안서 제출에 대한 하버드대학교 측의 결정은 에드워드 메이슨(Edward Mason) 교수에 의해서 마침내 결말이 났습니다. 그는 드와이드 퍼킨스(Dwight Perkins) 교수와 제가 포함된다면 하버드팀의 책임자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동 연구는 한국의 현 정책이나 장래의 계획이 아닌 한국의 개발사(開發史)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야 하며, 하버드팀에서는 메이슨 교수 자신이 연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메이슨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강의 일선에서는 은퇴하였지만,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문리과학 학장과 행정대학의 설립 학장을 지낸 하버드의 석학이었다. 또 ‘미국 경제협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회장이기도 했으며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였다.

“메이슨 교수가 하버드팀의 리더로 나선 것은 다른 교수진에게 그 공동 연구사업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한국에 대한 원조에 대해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국의 많은 중견 학자들에게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버드대학교가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를 위한 KDI의 파트너가 되었던 것이다.

197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작업에 들어간 이 연구사업은 김만제 원장과 에드워드 메이슨 교수가 총편집책임자가 되어 진행하였다. KDI 측에서는 수석연구원과 초청연구원까지 합계 20여 명(김광석·박종기·김대영·홍원탁·송희연·김적교·주학중·김영봉·송병락·사공일·김수곤·김윤희·서석태 수석연구원 및 문팔용·김신복·박영철·장영식

초청연구원)이 참여하였고, 하버드 측에서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주축으로 14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연구는 각 주제별로 KDI 측과 하버드 측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버드 측 학자들은 거의 전원이 KDI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시로 토의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KDI 측 학자들이 미국의 연구 파트너를 방문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영문으로 12권을 먼저 출판하고 KDI에서는 1979년부터 9권을 번역 출판했다. KDI가 번역 출판한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 총서'는 다음과 같다.

- 성장과 구조전환(집필자 - 김광석 · M. Roemer)
- 성장과 도시화 문제(집필자 - 송병락 · E. S. Mills)
-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집필자 - 김영봉 · N. F. McGinn)
- 무역 · 외원과 경제개발(집필자 - 홍원탁 · A. O. Krueger)
- 한국의 농촌개발(집필자 - 문팔용 · 반성환 · D. H. Perkins)
-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집필자 - 사공일 · L. P. Jones)
- 한국의 경제개발과 인구정책(집필자 - 김대영 · 김선웅 · R. Repetto)
- 한국의 금융발전(집필자 - 박영철 · D. C. Cole)
-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집필자 - 김만제 · 김광석 · E. S. Mason · D. H. Perkins · D. C. Cole)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영문으로 출판한 12권 중 우리말로 출판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는 3권이었다.

“박종기 박사와 저는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재정금융분야를 연구했는데 마침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고 바빠서 번역을 하지 못해 우리가 연구한 책은 우리말 출판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원고가 영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KDI에서 출판을 하려면 번역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출판부에서 먼저 출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버드에서 먼저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파급효

과는 매우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이 어떠한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가 컸습니다”

김적교 박사의 말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는 당초 김만제 원장이 예상했던 대로 그 후 우리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의 정책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 연구총서의 우리말 판 발간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고충이 있었다. KDI가 출판한 9권 중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는 이 연구총서 12권을 요약한 보고서로서 김만제 원장과 에드워드 메이슨 교수 명의로 출판되었지만 집필에는 이 두 분 외에도 김광석 수석연구원과 드와이드 퍼킨슨, 데이빗 쿨 교수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하버드 팀 편집책임자 에드워드 메이슨 교수가 집필한 제2장 제2절의 ‘한국의 근대화’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한 분석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 출판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파문을 어떻게 견뎌 내느냐 하는 문제로 김만제 원장은 뜻하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메이슨 교수가 집필한 글에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이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었다. 특히 5·16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억압적’이고 ‘권력집중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외부의 압력을 견디면서 독자적 노선을 추구해 나가는 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한국 사회에는 다른 제3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의 영향력이 스며 들어와 있으며, 이 영향력 중 일부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옹호하는 경향을 띤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

서 그는 ‘현재 이 나라의 정치발전이 걷고 있는 노정(路程)과 사회 변화의 조류와의 괴리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질 것임은 필연적이며, 이렇게 될 때 결국 머지않아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 쪽으로 향하는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진단했다(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47,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p. 81)

이 인용문 이외에도 메이슨 교수의 논문에는 여러 곳에서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억압과 독재적 성격의 국가 운영을 계속했다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책의 출판을 앞두고 메이슨 교수가 집필한 부분 때문에 김만제 원장은 많은 생각을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 활동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DI 원장인 나로서는 메이슨 교수가 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이지만 항목마다 집필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책의 책임편집자로 메이슨 교수와 내 이름만 표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이슨 교수와 내가 공저(共著)로 되어 있는 책에서, 그것도 국책연구소인 KDI가 출판하는 책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호되게 비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빼자고 할 수도 없었다. 물론 메이슨 교수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심사숙고 끝에 책이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상의할 경우 그 부분을 빼라고 요구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사후의 책임은 모두 나 혼자 지겠다는 이야기를 해본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청와대 비서실이 출판을 용납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부 학자들이나 언론이 눈치라도 채는 날이면 신문에 대서특필

될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결국 KDI 원장인 내가 책임을 지고 출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김만제 원장은 우선 출판과정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책이 출판되면 배포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직접 들고 가서 공동 연구팀의 미국 측 팀장이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질책을 받았다는 결심을 한 뒤 출판을 서둘렀다.

“그런데 공고롭게도 인쇄단계에 들어갈 무렵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 해를 넘겨 이 책이 발행되었는데 책임편집자로서 난처한 입장은 겪지 않았지만 이 책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많이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팽팽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제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정말 컸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이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김만제 원장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숨은 이야기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최고 브레인 34명이 동원되어 해방 후 30년 동안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대한 역사적 추이를 처음으로 정리, 검토하고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제 요인을 분석 연구한 작업이었으며, 이 방대한 연구총서에 담긴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사(成長史)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분석 정리한 최초의 학문적 유산이었다.

이 연구총서는 그 후 국내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의 영문판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에 관심이 있는 외국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그 내용이 많이 활용되고, 또 인용되었다. 그리고 후발 개발도상국은 물론 공산권의 몰락으로 동서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몇몇 나라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텍스트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